제6실 염직 | 다양한 기법의 염직품

이번 염직 코너에서는 <부처를 수놓은 비단>을 중심으로 아스카시대부터 무로마치시대에 걸쳐 호류지 헌납 보물로서 전해져 오는 염직품의 다양한 기법을 살펴봅니다. 호류지는 아스카시대에 건립되어 현재에도 광대한 가람이 남아 있는 사원으로 각 시대의 작품이 전해져 오는 것이 호류지 보물들의 특징입니다. 염직품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전시할 기회가 적었던 중세의 작품을 포함해 호류지에 전해져 오는 염직 작품의 세계를 기법을 중심으로 개관하려 합니다.

N-32-2, 5, 7: 부처를 수놓은 비단

가는 띠 모양의 비단에 선녀가 입는 천의를 머리 위로 크게 뒤집어 쓴 천인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강하게 꼬은 실을 사용하는 쓰기바리누이라는 기법으로 무늬의 윤곽선을 나타내고 내부를 세밀하게 채웠습니다. 쓰기바리누이는 앞면과 뒷면의 무늬가 동일하게 표현되는 매우 정교한 양면 자수기법입니다.

N-45-2: 표색 바탕 구슬 격자 꽃무늬 비단 조각

고훈시대부터 아스카, 나라시대 초기의 일본의 금(錦)은 여러색의 날실 중 필요한 색의 날실을 띄움으로서 무늬를 표현하는 경금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본 전시품은 경금으로 만든 작품으로 연속된 구슬로 이루어진 격자무늬 안에 도안화된 꽃무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N-46-2: 갈색 바탕 사자와 코끼리무늬 비단 조각

경금의 조각입니다. 사자무늬 양측에 화염 보주와 코끼리를 배치했습니다. 코끼리의 몸통에는 반점무늬가 있고, 등에는 화염 형태의 꾸미개를 단 특이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N-46-5: 짙은 갈색 바탕 썩은 나무무늬 광동비단 조각

광동 비단이란 무늬에 맞춰 미리 염색해 둔 날실을 평직 비단으로 짠 세로무늬 직물입니다. 호류지의 '번' 등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쇼소인의 염직품에는 유례가 거의 없습니다. 사용했던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인도나 서아시아 등의 기술에 근거해 중국 혹은 한반도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N-46-3-1: 적색 바탕 산과 마름모무늬 비단 조각

아스카시대의 금(錦)은 경금이 주를 이루었습니다만, 씨실을 임의로 띄워서 표현하는 띄운무늬 금도 일부 직조되었습니다. 이 전시품은 마름모꼴무늬와 산길무늬 등의 작은 기하학적 무늬를 연속해서 표현했습니다.

N-44: 자색 바탕 원과 꽃무늬 비단 보자기

쇼토쿠 태자가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여름 이불'(현재는 파손된 상태로 보관 중)을 감싸는 비단 보자기로서 전해져 오는 작품입니다. 금은 적색 바탕에 보라색, 황색, 초록색, 흰색의 색실로 국화무늬와 넝쿨과 꽃무늬 등을 배치해 2폭으로 완성했습니다.

N-46-6: 홍색 바탕 국화와 오동나무무늬 비단 조각

색바램의 상태로 보아 원래는 2폭 크기의 비단 보자기로 추정됩니다. 적색 바탕에 흰색과 초록색, 황색의 색실로 국화무늬와 오동나무무늬를 번갈아 배치해 무로마치시대경의 전형적인 무늬 구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N-53: 용 머리 돗자리

사각형 형태의 골풀로 짠 돗자리로 가장자리를 금(錦)으로 둘러맸습니다. 돗자리 부분의 무늬는 염색한 골풀로 표현한 점이 오늘날의 꽃돗자리와 동일합니다. 덧붙여 나라현 이카루가정의 호린지에는 7세기에 제작된 용 머리 돗자리(중요문화재, (전) 스이코 천황 소지품)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